

끝내 외면할 수 없는 겐지의 결벽증

마루야마 겐지의 《산 자의 길》을 읽고

구효서 | 소설가

《산 자의 길》(현대문학북스)을 쓴 마루야마 겐지는 1966년 〈여름의 흐름〉이라는 단편으로 《문학계》 신인문학상을 받고, 그 해 그 작품으로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했다. 스물 두살이었다. 최연소 아쿠타가와 상 수상자였다. 충분히 문학천재라고 불리웠을 만한데 과묵한 내 눈에는 1994년에야 띄었다. 번역된 《물의 가족》(김춘미, 현대문학북스)이라는 작품으로였다. 대단한 작품이라고 여겼던지 연이어 번역된 《달에 울다》(김춘미, 예문)를 사들였다. 그러나 다 읽지 못했거나, 읽었다더라도 꼼꼼히 읽지는 못했다. 그 뒤로 《파라달이 뒤를 쫓는다》(김춘미, 하늘문못)와 《소설가의 각오》(김난주, 문학동네) 같은 그의 저서들이 번역·출판됐다는 소릴 들었지만 웬지 내 도서관 구입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았다. 간간이 그의 글에 대해 '정말 대단하지 않아?' 하는 식의 반응들을 접하곤 했지만, 다른 때와는 달리 서둘러 그의 책을 사서 읽진 않았다. 내가 책을 사서 읽는 방식과 태도가 그의 작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소설적 인간의 전형 드러난 에세이

원제가 뭔지는 몰라도 '산 자의 길'이라고 번역된 이 책에는 '자전 에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소설이 아닌 것이다. 말 그대로 마루야마 자신이 쓴 마루야마의, 지금까지의 일대기인 셈이다.

하지만 매우 소설적인 글이다. 어린 시절부터 56세에 이르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그다운 냉정함과 솔직함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어린 시절의 기억조차 현재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긴 해도 소설적 인간의 한 전형으로도 읽힐 수 있는 마루야마라는 인물을 성공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는 점이 그렇다.

황실의 누군가가 죽었다고 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도쿄 쪽을 향해 일제히 머리를 숙이고 묵념하라고 했을 때 초등학생이었던 마루야마는 교실을 뛰쳐나가고 만다. 마침 일본 우익들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태로 나라 안팎이 시끄러운 때라 이런 마루야마의 어린 시절이 당돌하고 기특하면서도 뭔가 다른 인물일 거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학생 80명 가운데 80등을 하고,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보수적인 기업의 일개 텔렉스 오퍼레이터로 간신히 취직을 하고, 그나마 얼마 안 가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소설이나 쓰자고 숙소에 틀어박히는 모습들을 볼 때도 '과연 마루야마다'고 할 만했다. 이웃과 친구와 부모와 자기 자신마저 믿기 어려운 일, 즉 유력 문예지에 신인상으로 당선되고 곧이어 아쿠타가와 상까지 받았으면서도 끝없이 대중추수적이고 소아병적인 일본문단의 일원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부정하고 혹독하게 질타하는 마루야마 또한 스물두 살의 나이로서는 빛나고 아름다웠다.

남다른 소설, 남다른 것 없는 운명

그러나 '최고의 문학'을 위해 나이 오십에 차마 전신 문신은 못하고 매일 아침 면도날로 머리를 박박 밀면서 소설가의 각오를 다진다는 대목에 이르고 나서부터는 솔직히 '겨우 이 정도였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떤 각오 앞에 머리를 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 따위는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마루야마는 머리를 미는 쪽의 인간이었던 것이다.

일본 문학과 문단에 대해 안쓰럽고 민망할 정도로 질타하고, 소설과 아내를 팽개쳐 둔 채 오토바이에 미쳐 사막을 횡단하고 랠리에 참가하

고
로키산
맥을 넘었
던 일들도 '그
만이 가능했던
일'이 아니라 '그이기
에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조양욱 옮김
현대문학북스/A5신/246면/8000원

문학에 무슨 수직적 서열 같은 게 있다고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최고의 문학을 하겠다고 덤빌 수 있을까. 그러나 끝없이 남달라야 한다는, 차별성에 대한 지나친 강박은 왜곡된 의지라기 보단 그의 태생적 기질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마루야마 겐지의 문학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지도 모른다.

하여튼 그도 어지간히 자신의 운명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문학에 대한 그의 대응이 남다르게 치열했다 하더라도, 이 책에 쓰여진 그의 전체적인 삶의 숲을 훑고 나면 별로 남다른 것도 없는 인생노정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한 페이지를 남겨놓고 "단지 살아 있는 것만으로써 비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단지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산 자가 아닐까" 하는 그의 생각이 변칙 눈에 띄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끝내 그를 외면하고 싶지는 않았나 보다.●

